

사서(史書)를 통해 본 가야·가야인식

박 양 리*

차 례

- | | |
|-------------------------|------------------------------|
| I. 머리말 | 2. 가문의 근원으로서 가야·가야인 |
| II. 사서를 통해 본 가야·가야인식 | 식 |
| 의 제 양상 | 3. 우리 고대사로서 가야·가야인식 |
| 1. 역사와 신화의 경계로서 가야·가야인식 | III. 맺음말 : 가야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제언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가야의 문학적 탐구를 위한 시론적 작업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가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사서(史書)를 통해 살펴보았다.

역사와 신화의 경계로서 가아는 신성한 왕이 다스리는 국가로 기억되었다. 특히 수로왕은 건국신화의 주인공으로 존송되었다. 가락국의 후손인 김해 김씨와 허씨 가문은 가문의 근원으로서 가아를 인식하였다. 이들은 수로왕릉의 능묘를 보존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수로왕릉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

* 부산대학교

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야의 건국신화적 인식에 대해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익과 안정복, 정약용 등 실학자들은 가락국의 신화가 허탄하여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이들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로 우리 고대 국가로서 가야의 존재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정약용은 가야의 역사가 고대사에 있어서 신라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가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가야가 단순히 박제된 고대사가 아닌 오랜 시간동안 기억되었던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가야는 기억하는 이들의 입장과 목적에 따라 달리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야인식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탐구하고, 나아가 현재의 시점에서 가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가야, 가야인식, 가락국기, 가문의식, 수로왕, 이익, 정약용, 동사강목, 아방강역고

I. 머리말

가야는 기원 전후에서 6세기 중엽까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대의 낙동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던 고대 국가이다. 그 명칭이나 권역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의 논의가 분분하나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진 연맹왕국으로서 가야의 최대 판도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경상도 동쪽과 서쪽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경상도 동쪽 지역에서도 낙동강변에 가까운 창녕·밀양·부산 등지가 그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가야제국(伽耶諸國)은 각기 독자적인 문명을 발달시키며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신라·백제와 관계를 맺으며 600년 이상 한반도 남부 지역에 그 존재감을 여실히 드

러내었다.¹⁾ 이후 신라에 완전히 복속된 이후에도 가야의 유민은 신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 가락국의 왕족이었던 김유신 집안은 신라 왕의 외척이 되었으며, 이들의 후손은 김해 김씨와 양천 허씨 등의 강력한 씨족을 이루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가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학과 고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근래의 한국 고대사학계에서는 가야의 독자성과 독립적 논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가야사 및 가야고고학을 연구하는 연구 인력도 충분히 증대”²⁾되었다. 그 결과 가야의 역사는 물론 정치, 사회상 및 유물과 유적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었다.³⁾ 그러나 문학 연구의 경우 가야 관련 연구는 대단히 협소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문학연구자들의 경우 가야에 대한 관심은 주로 <구지가(龜旨歌)>와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구지가>와 <가락국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축적되었으나,⁴⁾ 그 외의 연구는 일부 가야 권역의 설화에 대한 연구⁵⁾와 금관가야 권역으로서의 김해 지역 한시에 대한 연구⁶⁾가 있을 뿐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가야인

1)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2002, 18~22쪽 참조.

2) 위의 책, 23쪽.

3) 가야에 대한 연구사는 김태식, 위의 책;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200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4)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승찬, 『구지가와 그 배경의 연구』,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논문집』 14, 인문사회과학편, 1975; 차재형, 『<구지가>의 전쟁서사시적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화회, 2003; 김난주, 『굿 노래로서의 <구지가>와 <해가> 소고』, 『국문학논집』 14,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김선향, 『<가락국기>의 문학적 연구』, 『어문연구』 21, 충남대 어문연구회, 1991; 김균태, 『<구지가> 연구:수로신화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김열규, 『가락국기의 신화적 탐색』, 『인문연구논집』 5, 인제대, 2000; 임주탁, 『<가락국기>서사의 형성과 전승』, 『지역문학연구』 제10호, 경남부산지역문화회, 2004.

5) 김재웅,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과 비극성』, 『한국의 철학』 제 47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6) 엄경흠, 김해 칠점산(七點山) 관련 한시의 심상(心象)과 그 의미, 『석당논총』 제

들이 남긴 문학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나, 가야의 기억이 담긴 설화와 시문(詩文) 등의 고전문학과 가야 문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소설과 드라마, 나아가 문화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에서의 가야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야의 문학적 탐구를 위한 시론적 작업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가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사서(史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동사강목』, 『아방강역고』 등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서를 주요 텍스트로 분석하되 필요에 따라 조선시대 문집 소재 기록들을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⁷⁾ 물론 본고의 목적이 가야의 역사적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당대인들이 가야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가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발견하고, 그 원인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가야가 잊혀진 고대 국가로 망각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된 우리의 역사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문학 속에 가야에 대한 재발견과 지금 이 시대의 문학 속에서 가야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57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 『한시에 표현된 駕洛國 都城으로서의 金海』, 『동양한문학연구』 39집, 동양한문학회, 2014

7) 물론 이들 텍스트가 모두 엄정한 의미에서의 사서(史書)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작자 및 당대인이 가야를 바라보는 시각과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사서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사서를 통해 본 가야·가야인식의 제 양상

1. 역사와 신화의 경계로서 가야·가야인식

우리 고대 국가들에 대한 기록이 그러하듯이 가야인 스스로가 남긴 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역사서 상에서 가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이다. 김부식(1075~1157)은 중국의 『사기(史記)』의 편제를 따라 편년체적 방식으로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본기(本紀)로 편찬하였다. 가야는 신라본기 속에서 신라의 인접국으로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가야의 기록은 특히 신라 초기인 파사이사금 조에서 다수 등장하는데, 파사이사금이 가야를 경계하여 새로 성을 축성했다거나⁸⁾, 가야가 신라의 변방을 습격했다거나⁹⁾, 신라가 병사를 보내 가야를 정벌했다는¹⁰⁾ 내용이다. 특히 파사 이사금 23년에는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의 영토 다툼이 벌어졌는데, 금관국의 수로왕이 즉석에서 의견을 내어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기사¹¹⁾를 통해 가야가 신라에 있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다. 신라본기에서 가야에 대한 기록은 “금관국의 주 김구해가 왕비 및 세 아들, 즉 장남 노중, 차남 무덕, 삼남 무력을 데리고 나라의 보물을 갖고서 항복해 왔다. 왕이 예를 갖추어 대접하였다. 상등의 지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¹²⁾는 법흥왕조의 기록이 마지막이나, 이후 <김유신열전>에서 가야의 유민들이 신라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김부식은 김유신이 가락국(금관국) 왕족의 후손임을 밝히고, 그의 시조로서 김수로왕의 사적과 가락국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8년. 이하 『삼국사기』의 인용은 이재호가 번역한 『삼국사기』(술, 1997)을 따름.

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15년

1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18년

1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3년

1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9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삼국의 역사, 특히 신라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가야의 존재가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부식에게 가야가 독립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닌, 신라와의 관계망 속에서만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부식은 우리 역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로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삼국 중 신라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하면서 신라 정통론을 드러내었다.¹³⁾ 즉, 김부식에서 가야란 독립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역사라기보다는 주체가 되는 정통 국가인 신라의 객체로서만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삼국사기』에서는 가야사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나 그 시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고려시대의 또다른 사서인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가야의 위상이 『삼국사기』에 비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연(1206~1289)은 김부식이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충분히 선양하지 못한 점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삼국유사』에서는 중세보편주의를 독자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삼국유사』의 체제 속에서 가야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사와 거의 대등하게 설정하였다. 『삼국유사』는 「왕력」, 「기이」, 「홍법」, 「탐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왕력」은 우리 역사의 역대 여러 왕들의 세계와 그 연대에 대한 기록이고, 「기이」은 고조선 이후 여러 국가에 관한 기록이며, 나머지는 모두 불교의 홍포(弘布)와 승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 일연은 「왕력」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가락국의 왕력을 제시하는 한편, 「기이」에서 금관가야의 역사에 대한 <가락국기>와 나머지 5가야를 다룬 <오가야>조를 독립조목으로 선정하여, 『삼국사기』가 누락시켰던 가야사를 보완하였다.

이 가운데 <가락국기>는 고려 문종 때 금관지주사(金官知州事)였던 문인(文人)이 지은 것을 일연이 『삼국사기』에 채록한 것이다. 물론, <가

1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1, 지식산업사, 2005, 373쪽 참조.

락국기>는 엄정한 역사서술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왕력>과 <가락국기>의 왕대기 사이에 적지 않은 오류를 찾아볼 수 있을뿐더러,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수로왕 사후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로왕릉의 연혁과 관리에 관한 일을 장황하리만치 서술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제2대 거등왕의 왕대기를 시작하고 있는 등, 편년체의 서술방식을 따르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¹⁴⁾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의 전승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데, 특히 수로왕의 탄생과 건국, 혼인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신화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로왕 이야기는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등의 건국신화와 그 성격이 거의 동일한데, 다시 말해 <가락국기>의 수로왕 이야기는 건국시조로서의 그의 신성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신라 탈해왕과 가락국 수로왕의 관련담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처음에 금관국의 해변에 도착했는데, 금관 사람들이 괴이히 여겨 취하지 않았다. 다시 진한의 아진포구에 이르니, 이때가 시조 혁거세 재위 39년이였다.

(2) 남해왕 때 가락국의 바다 가운데에 어떤 배가 와서 정박하니, 그 그나라의 수로왕이 신하들과 함께 북을 치고 환호하며 맞이하여, 장차 머무르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배는 급히 달아나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

(3)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으로 오니 그의 키는 다섯 자였고 허리의 둘레는 한 자나 되었다. 혼연히 대궐에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였다.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왕은 답했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고, 나는 장차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한다. 나는 감히 천명을 어기어 왕위를 남에게 줄 수 없으며, 또 감히 우리 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

14) 이영식, 『<가락국기>의 사서적 검토』, 『강좌 한국고대사』 5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153쪽 참조.

렇다면 술법을 겨루어 보겠는가.”라고 하니, 왕이 “좋다”라고 하였다. 잠시 후 탈해가 매로 변하매 왕은 독수리로 변하였다. 다시 탈해가 참새로 변하니 왕은 새매로 변하였다. 이 사이가 잠시도 지체되지 않았다. 탈해가 본모습으로 돌아오니, 왕 또한 그렇게 하였다. 탈해가 이에 항복하며 말하였다. “제가 술법을 다투는 판에서 독수리 앞의 매였고, 새매 앞의 참새였는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성인께서 살육을 싫어하시는 인자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왕과 자리를 다투는 것은 진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가서, 교외에 있는 나루터에 이르러 중국의 배가 와서 닿은 물길을 따라 떠나려고 하였다. 왕은 혹시 그가 가지않고 머물며 난리를 꾀할까 염려하여, 급히 5백척의 수군을 보내어 그를 추격하게 하였다. 탈해가 계림의 땅으로 달아나니, 수군들이 모두 돌아왔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일의 기록이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탈해왕이 신라에 자리를 잡기 전에 가락국을 거쳐갔다는 내용인데 (1)은 『삼국사기』, (2)는 『삼국유사』 <탈해왕>¹⁵⁾, (3)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실린 이야기이다. 『삼국사기』에서 금관국, 즉 가락국은 탈해가 스쳐지나간 장소에 불과하며 한줄로 간단하게 언급될 뿐이다. 오히려 가락국 사람들이 탈해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괴이하게 여겼다고 서술되고 있다. 『삼국유사』 <탈해왕>조에서는 가락국의 입장에 변화가 보인다. “수로왕이 신하들과 함께 북을 치고 환호하며 맞이하여, 장차 머무르게 하고자 하였”으나, 탈해의 배가 급히 달아났다고 전한다. 탈해를 환영한 가락국과 수로왕의 입장과 그것을 거절하고 계림으로 향한 탈해의 입장 차이가 『삼국사기』에 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가락국기>의 서술이다.

<가락국기>에서 탈해는 신이한 존재 이전에 약탈자로 그려진다.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 수로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탈해는 왕위를 찬탈하고자 한다.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

15) 이하 『삼국유사』의 인용은 이재호가 번역한 『삼국유사』(술, 1997)을 따름.

서술된 『삼국사기』와 달리 가락국의 입장에서 서술된 <가락국기>에서 작자는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수로왕에게 있으며 탈해는 부정적 인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기록에서 탈해가 신라에 정착하기 전에 가락국을 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역사상 탈해가 신라의 왕이 되기 전에 가락국과 마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탈해가 스스로 떠난 것인지 아니면 수로왕에게 격퇴당한 것인지 어느쪽이 역사적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역사란 서술자의 입장에서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어 기록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의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신화적 요소를 차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가락국기>에서는 수로왕이 탈해를 물리치는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진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름아닌 술법 대결이었다. 탈해가 매로 변하자 수로왕이 독수리로 변하고, 다시 탈해가 참새로 변하니 수로왕이 새매로 변신하였다. 이에 탈해가 본 모습으로 돌아와 항복하면서 살육을 싫어하는 수로왕의 인자함에 감복하였다는 것이다. 수로왕은 가락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변신이라는 신화적 능력으로서 보였던 셈이다. 수로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 머릴 아유타국에서 건너 온 허황옥을 맞이한다는 혼인담 역시 박혁거세와 알영의 경우와 같이 신화적 존재로서 왕의 위상을 돋보이게 한다.

물론 <가락국기>에서 가락국과 수로왕의 존재가 신화적 영역에만 한정되어 전하는 것은 아니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수로왕은 건국 이후 구간 등의 품계를 정하고, 주나라 제도와 한나라의 법도를 따라 관료의 차등을 주기도 했으며 궁궐과 도로를 정비하기도 했다. 이는 가락국이 국가로서의 제도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로왕 사후 역대 왕들의 왕대기 역시 역사적 실체로서 가락국이 대를 이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가락국기>에서는 신화로서의 가락국과 역사로서의 가락국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하겠다.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수로왕릉의 사당과 관련된 이야기 역시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서 가야를 당대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가야 멸망 이후 신라 문무왕이 김수로왕의 능묘를 정비하도록 명하여 1년의 다섯 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신라 말에 충지가 금관의 옛성을 빼앗고 성주장군이라고 참칭하였는데, 그 부하 영규가 사당의 제사를 폐하였다. 그리고 영규는 단오날 사당의 대들보가 까닭없이 부러져 그 밑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에 장군이 왕의 초상화를 그려 정성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사흘만에 초상화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결국 장군이 수로왕의 직계손인 규림을 불러 제사를 지내게 하여 대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후에도 도적 떼들이 보물을 탐내 사당을 침범하였더니 몸에 갑옷과 투구를 두른 채 활을 든 무사 한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모두 물리치기도 하였다. 즉, 가락국의 유적이자, 수로왕의 능묘에 대한 존숭이 그 신성성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이자 신화로서 가락국의 기억은 가락국의 중심지였던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락국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락국기의 건국신화의 서사가 수로왕 혹은 가야가 존재하던 시대에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11세기까지 온전하게 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¹⁶⁾ 그렇다하더라도 가야가 멸망하고 난 뒤 수세기가 흐른 뒤까지 수로왕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가락국기>가 찬술되고, 이것이 다시 11세기까지 이어졌던 것은 역사이자 동시에 지역 전승의 신화로서 가락국의 기억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화로서 가야에 대한 기억이 가야의 옛 권역에서 이어지고 있음은

16) 이강옥은 <가락국기> 서사의 형성 과정에서 9간, 김수로와 그 소속집단, 동시대 그 지역 주민, 후대의 가야왕과 왕족, 후대의 그 지역주민, 문무왕, 고려 문종과 찬술자, 일연 등의 의식이 중층으로 개입하였으리라 분석한 바 있다. (이강옥, 『수로신화의 서술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 의미』, 『가라문화』 5집, 경남대 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1987, 140쪽 참조)

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초의 지리지인 『신동국여지승람』의 <고령현>편에 실린 석이정전의 내용은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의 이야기이다.

최치원(崔致遠)의 중[釋] 이정(利貞)의 전기를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견모주(正見母主)는 천신 이비가(夷毗訶)에 응감한 바 되어,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金官國)의 왕 뇌질청예(惱窒靑裔)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라 하였다.¹⁷⁾

<가락국기>와 달리 이진아시왕의 이야기는 매우 간략하다. 그러나 지모신과 천신의 결합으로 시조왕이 탄생하였다는 서사구조는 건국신화와 일치한다. 이는 대가야의 권역인 고령현에서 전승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해지역 사람들이 가락국의 신화를 기억했듯이 고령 지역에서는 대가야의 신화를 기억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 가문의 근원으로서 가야·가야인식

<가락국기>에 따르면 가락국이 멸망한 이후 신라 문무왕이 수로왕의 능묘를 정비하도록 명하여, 수로왕의 17대손 갱세급간이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문무왕이 자신의 외가 혈통을 가락의 왕통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무왕은 수로왕 제례를 통해 국왕으로서 자신의 혈통적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써 가야, 특히 가락국에 대한 기억은 주로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이라는 기념물을 매개로 이루어져왔다. 본래 기념물은 자신의 기원과 형성,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 또는 역사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념(commemoration)해

17) 『신동국여지승람』 제29권, <고령현>

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건립되었다. 물론 수로왕과 허왕후의 능묘와 사당이 인위적인 기념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래로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건립된 기념비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자숭배’ 문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¹⁸⁾ 그런 점에서 볼 때 수로왕과 왕비의 능묘와 사당은 사자, 즉 김해 김씨와 허씨 시조에 대한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는 기념물로서 의미한다고 하겠다.

<가락국기>에서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에 대한 기록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 역시 가문의 근원으로서 이들의 사적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가락국기>의 저자인 금관지주사이었던 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김양일 혹은 김양감으로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가 수로왕과 허왕후의 사적을 칭송하고, 그 능묘제례의 비용을 충당하는 왕위전의 유지를 마땅한 이치로 설파하면서 허왕후의 원당에 딸린 토지가 장유사에 귀속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가락국이 멸망하고도 수백년이 지난 시기에 수로왕과 허왕후의 사적의 보존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함은 곧 수로왕의 후손임을 자칭하는 이들 가문의 고려국 내의 현재적 위치에 정당성을 부여¹⁹⁾하기 위한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조에도 지속된다.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김해 김씨 가문의 일원이었던 김일손(1464~1498)은 <회로당기(會老堂記)>를 남겼는데, 여기서 조선 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김수로왕에 대한 묘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부는 옛 가락국(駕洛國)의 터이라,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무덤이 지금 서곽문(西郭門) 밖에 있으므로 관가에서 초목(樵牧)을 금하였고, 고사(故事)에 부로가 시수(時羞)를 갖추어 제사를 올리고는 향인들이 함께 음복하는 것이 해마다 상례가 되었다. 나는 김해 사람이라, 선세(先世)

18)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190~192쪽.

19) 임주탁, 앞의 논문, 참조.

에서 서로 전하기를, “수로왕의 계출(系出)이라.” 하나 아득하여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매양 능 밑을 지나칠 때마다 곽숭도(郭崇道)가 곽자의(郭子儀)에게 절하던 일이 혐의적어 감히 스스로 붙이지는 못하였으나, 오히려 시골 사람을 따라 조두(俎豆)를 진설하였다. 지난해 겨울에, 내가 도주(道州)전야(田野)로부터 이르렀을 때, 마침 시골 사람이 음복하는 날이었으므로 많이 이 당에 모였다. 나는 당 밑에 나아가 부로들에게 절을 드렸다. 김선생(金先生)이 나를 맞이하며, “이것은 우리 시골의 풍속으로서 인습된 지 이미 오래니, 혹 옛 의례에 방해로움이나 없을런지.” 하고 묻기에 나는, “무엇이 방해로겠습니까. 예로부터 제왕(帝王) 중에 공덕(功德)이 있는 분에게는 대가 끊어진 뒤에 그 향토의 백성들이 사당을 세우지 않음이 없는 것이 전기(傳記)에 나오곤 하니, 요(堯)·순(舜)·대우(大禹)의 사당은 물론이요, 후세에 이르러 한 나라의 고조(高祖)·광무제(光武帝)·촉선주(蜀先主)가 모두 사당이 있어, 평민들이 기도 드리고 고(告)하기도 하며, 제사도 드릴 수 있었으니, 이는 비록 경문(經文)에는 맞지 않으나 나라사람이 다하지 않은 생각을 품어서 천고의 공경을 일으킨 것이니, 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상고하건대, 수로왕이 후한(後漢)건무(建武) 18년에 나라를 열어서 4백 년에 11세를 전하고, 말왕(末王) 구해(仇亥)에게 이르러서 신라에 항복하여 나라가 없어진 뒤, 이제 천 년이 넘어 왕의 자취가 인멸되고 남은 은택이 말랐으되, 향인이 오히려 제사를 드려 게을리 하지 않았음은, 대체 수로왕은 우리 시골 생민(生民)의 처음 임금인 만큼 따라서 그 은덕을 갚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은 실로 우리 시골의 아름다운 풍속이라, 우리 시골로서 의당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²⁰⁾

김일손은 김해부가 가락국의 옛 터전임을 상기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때가 되면 수로왕릉에 모여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음복한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그는 자신 역시 수로왕의 계출이라고 들었다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미심쩍다고 전제하면서도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묘사가 경문에는 맞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김해 지역

20) 김일손, <회로당기>, 『속동문선』 제14권. <회로당기>의 번역은 고전번역원 DB 참조.

의 아름다운 풍속으로 대대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김해 김씨가 ‘수로왕의 계출’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수로왕릉과 사당에 대한 존숭의식이 조선조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조선 초에 국가 차원에서도 수로왕릉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세종 21년(1439년) 10월 경상도 관찰사 이선은 장계를 올려 수로왕의 능침이 짓밟혀 있다고 하면서, 수로왕이 나라를 백여 년이 넘게 다스렸고 국가도 수백 년 동안 오래 지속되었으니 신라 시조에 대한 전례에 따라 능 옆 사방 50보 안에 경작을 금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조역으로 만듦과 표석을 세우도록 청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는 표석과 가호는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방 30보 안에서 벌목과 경작을 금하게 하였다. 이후 선조 때에는 임진왜란으로 불탄 전대 왕과 충현들의 능묘를 수리할 때 수로왕릉도 대상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물론 조선 초의 이러한 조치는 기자나 신라와 고려 등 다른 전대 왕조의 능묘와 동등한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전대 왕들에 대한 향사(享祀)에서 수로왕릉은 제외되었으며, 다만, 전대의 충현들의 묘에 그러했듯이 벌목과 경작을 금하여 그 위치를 분명히 밝히는 정도의 예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 중기 이후 수로왕의 후손들은 가문 차원에서 수로왕과 허왕후 능묘의 위상을 높이 고자 하는 노력을 한층 더 활발하게 보여주기에 이른다.

조선 중기 이후 양반들은 그들 가문이 유서가 깊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족보를 만들고, 문중이라고 불리는 조직을 공고히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7세기 중후반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가문의식의 강화와 함께 가문의 시조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명가(名家)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리라, 그 시조가 비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김씨와 허씨 두 가문의 시조인 수로왕과 허왕후의 기억은 더욱 유의미하게 되었다.

허목(1595~1682)은 <족씨양천허씨족보서(族氏陽川許氏族譜序)>에서 “우리 족씨는 가락으로부터 나왔다”고 허씨 가문의 뿌리가 가락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기인』에 선조들의 비문을 실으면서 <가락국군 수로왕납릉비음기(駕洛國君首露王納陵碑陰記)>와 <가락국보주허태후 묘비음기(駕洛國普州許太后碑陰記)>를 제일 첫머리에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시조로서 두 사람의 위상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앞서 조선 전기에 김일손이 “아득하여 잘 알 수 없다”며 수로왕으로부터의 세계를 미심쩍어 하던 것과는 진일보한 변화라 하겠다.

허목의 두 기(記)를 살펴보면 조선 중기 두 능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가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580년에 영남 관찰사로 부임한 허엽이 왕묘를 크게 수리하였고, 이후 1646년에 역시 영남 관찰사로 부임한 허적이 묘를 크게 수리하고,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 이들 가문을 중심으로 수로왕과 허왕후의 능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중기 이후 『조선왕조실록』에는 가락국의 후손임을 자부하는 이들이 단순히 가문 차원에서 능묘를 지키고 묘사를 지내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지내줄 것을 중앙에 청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영조 50년인 1774년 청도의 유학인 김은 등은 왕에게 수로왕릉에 대해 상소를 올린다.

“신 등의 시조(始祖)는 가락국(駕洛國)의 수로왕(首露王)인데, 하늘이 경사스러운 징조를 내려서 미개(未開)한 세상에 우뚝하게 나타났으니, 자영(紫纓)의 금합(金槨)은 진실로 <은(殷)나라 시조 설(契)이 탄생할 때의> 제비가 알을 떨어뜨린 것[玄禽之墮卵]과, <주(周)나라 시조 후직(后稷)이 탄생할 때의> 거인이 디딘 발자국[巨人之降跡]의 사실과 부합됩니다. 김해(金海)의 구지봉(龜旨峯)은 곧 수로왕이 탄강(誕降)한 곳인데, 해마다 심한 가뭄이 들 때에 기도를 드리면 신령(神靈)의 감응이 어긋나지 않았으니, 조정에서 70명의 양정(良丁)을 배정(配定)하여 수호하는 방법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임진년에 이르러 왜구(倭寇)가

무덤[塚]을 파헤치는 번고를 당하자, 조정에서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함양(咸陽) 지경에서 망제(望祭)를 지내도록 하였으니, 높이 받드는 지극한 뜻을 누군들 흠탄(欽歎)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시조의 후손(後孫) 여러 사람들이 수십 칸의 청사(廳事)를 창설(創設)하고 30경(頃)의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제전은 김해부(金海府)의 향청(鄉廳)에 속하게 하고, 오직 동지(冬至)에 한번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본 고을의 품관(品官)이 헌작(獻爵)과 유식(脩食)을 하고 서리(胥吏)가 제사일을 맡아 보게 되니, 예의(禮儀)가 어긋나고 희생(犧牲)과 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숭인전(崇仁殿)·숭덕전(崇德殿)의 규모와 같게 하도록 하여 주소서.”²¹⁾

김은은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자신의 시조인 수로왕의 위상을 설(契), 후직(后稷) 등 중국의 역대 성인들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앞선 시기 허목에게서도 볼 수 있다. 허목은 가락의 수로왕의 탄강에 대해 찬술하면서 그 신화적 서사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태곳적 바다 모퉁이의 우리나라는 사람과 생물의 탄생이 가장 늦었다. 요 임금 시절에 비로소 단군이 있었고, 한나라 시절에 이르러서 혁거세(赫居世), 금와(金蛙), 주몽(朱蒙), 알지(閼智)와 모라(毛羅)의 양씨(良氏)·고씨(高氏)·부씨(夫氏)가 있었으니, 모두 인도(人道)를 인함이 없이 화생(化生)하였다. 또 건무(建武) 연간에 여섯 가야의 군왕이 있었는데, 그들의 탄생도 그러하였다. 상고 시대에 웅씨(熊氏) 부인은 큰 번개에 감응하여 현원(軒轅)을 낳았고, 설(契)은 간적(簡狄)이 현조(玄鳥)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낳았으며, 후직(后稷)은 강원(姜嫄)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낳았으니, 예로부터 생민(生民)의 시조는 그 탄생이 참으로 그러하다.²²⁾

21) 『조선왕조실록』, 영조 50년, 6월 임오.

22) 허목, 『기언』, 권33, 「동사」, <가락>. 이하 『기언』의 번역은 고전번역원 DB 참조.

허목은 김수로의 화생(化生)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귀통이에 있었기에 사람의 탄생이 늦었음을 지적한다. 중국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있던 시기에 우리 땅에서는 ‘신화’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사람이 늦게 생겨났다고 인정하면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상고시대에 현원과 설, 후직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기화(氣化)하여 태어난 것처럼 자고로 생민의 시조는 그 탄생이 비범하다면서, 중국의 옛 성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수로왕의 신이한 탄생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김은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수로왕의 위상이 이러할진대 현재 능묘에 대한 대우가 고조선과 신라 등 다른 고대 국가의 건국왕에 비해 부족한 것을 한탄한다. 그의 청원에 대해 영조는 신라에 부속된 작은 나라에 이러한 일은 허용해 준 예가 없음을 들어 청을 거절하였다. 다만, 천 년이 지났음에도 가야가 잊혀지지 않음은 향청(鄉廳)의 공이 크다고 김해 부사로 하여금 제문에 국왕을 칭하여 치제할 것을 명하였다.

이 후에도 김씨와 허씨를 중심으로 수로왕릉에 대한 국가적 제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조 대에도 이들은 왕의 어가에 나아가 호소하는 등 수로왕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에 드디어 정조는 예조에 명을 내려 수로왕릉의 현황과 제실 문제 위전, 제사 방식 등을 알아보고 향후 방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능의 관리를 맡는 능감을 배치하도록 명하였다.²³⁾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과 허왕후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고 그 위상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오히려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스스로를 가락국의 후손이라고 정체성을 인식한 이들이 꾸준히 가문의 근원으로서 가락국의 기억을 지키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3) 『조선왕조실록』, 정조 16년 4월 을사.

3. 우리 고대사로서 가야·가야인식

신화는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들 사이에서는 신성성을 인정받는다. <가락국기>는 가락국의 건국신화이자 김해 김씨, 허씨의 가문의 근원으로서 그 신성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화의 시대를 지나면서 가락국과 대가야의 건국신화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不語怪力亂神”의 글쓰기를 체득한 유교국가 조선의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금빛 알이 내려와 그 속에서 왕이 태어났다가, 바다 건너 아유타국에서 왕비가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엄정한 사실고증을 중시했던 실학자들은 더욱 그러했다. 수로왕의 후손임을 자부하던 허목은 중국의 옛 문헌을 상고하며 나뭇의 해석을 통해 그 신성성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그럴 수 없었다.

근기 남인계열 문인이었던 성호 이익(1681~1764)은 『성호사설』에서 고대 국가 건국시조들의 신이한 탄생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태고(太古) 시대에는 반드시 먼저 천지가 있고 그 뒤에 사람이 있게 되었을 것이다. 천지 사이에는 본래 사람이 생겨나는 이치가 있으므로, 맨처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기화(氣化)로 생겨났다는 것이 그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러했을 것이지만, 사람이 이미 생겨난 후에는 형화(形化)로 연이어지게 되는데, 어찌 다시 기화로 형성되는 자가 있겠는가? 삼국(三國) 무렵과 삼한(三韓) 말기를 당해서 신라(新羅)의 폭원(幅員)은 1천 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나라의 수효는 20개가 넘었고, 백성들도 또한 아주 적지는 않았었다. 신라에서 요·계(遼薊)까지의 거리는 수천 리에 지나지 않고, 때는 바로 서경(西京) 말기였다. 서촉(西蜀)과 강남(江南) 같은 변두리에 사는 족속이 어찌 한량이 있었겠으랴만, 그 중간에 어떻게 살아 왔다는 전설은 들을 수 없고 어찌 유독 신라에 이르러 기화로 생겨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많았을까? 이것이 허망하다는 것은 벌써 정론(定論)으로 되었다. (중략) 김유신(金庾信)은 남가야(南加耶) 수로왕(首露王)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의 비(碑)에는 “헌원(軒轅)의 후예요, 소호

(少昊)의 자손이다.”라고 하였다. 신라 사람은 자칭 금천씨(金天氏)의 후예라고 하니, 가야와 신라는 바로 동성(同姓)인 것이다. 그들이 멀리 선성(先聖)을 인용한 것은 비록 믿을 수 없는 말이나 처음부터 기화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당시에 이미 정론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²⁴⁾

이익은 태고에 천지가 생겨나고 처음으로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기화(氣化)가 이치에 맞았을 것이나, 사람이 이미 생겨난 후에 다시 기화로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 삼국이 생겨날 시기 이미 중국은 서한 말기였으며, 우리나라도 단군, 기자 이래로 오래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들어 이 이야기가 허망하다는 것을 ‘정론(定論)’으로 단정짓는다. 또한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로왕이 기화로 생겨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이미 정론이었을 것이라 추론한다.

이익은 허왕후 이야기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파고들어 허탄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김해 허후(許后)도 탐라(耽羅) 3녀의 유(類)와 같은 것이다. 가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 표류하여 우연히 이룬데 불과한 것이다. 우리 세종(世宗) 때에 7세 되는 계집아이가 바다에 표류하여 제주도에 닿았는데 배 안에 거문고 하나 향아리 하나 《자치통감(資治通鑑)》 한 질이 있었다. 세종은 명령하여 궁중에 기르게 하였다. 그가 자라서 왕손 강양군(王孫 江陽君)의 첩이 되었으니 지금의 파곡(坡谷)·단애(丹厓) 등 제공(諸公)이 모두 그 후손이며 선왕조(先王朝) 때 고기잡이 배가 표류하여 서해안(西海岸)에 닿았는데 배 안에 4세 된 아이가 있었다. 대장 유혁연(柳赫然)이 집에서 길러 조정에 아뢰어 성(姓)을 어씨(魚氏)로 주었으니 그 배 안에 고기그물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 자손이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변방의 무관(武官)이 많이 났으니 지금의 진해(震海)·진연(震淵) 등이 그 자손이다. 이런 등속이 만약 삼국 때에 있었다라면

24) 이익, 『성호사설』, 「경사문」, <기화>. 이하 『성호사설』의 번역은 고전번역원 DB 참조.

반드시 기괴한 말을 보태고 꾸며서 신(神)이 내려오고 귀신의 조화라 하여 한없이 신비스럽고 황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천년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나 지금 사람들은 널리 상고하지도 않고 또 그 후손이 되는 사람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실로 이와 같았다고 말하니 이상하다.²⁵⁾

그는 <수로허후>에서 수로왕과 허왕후의 전승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허황옥에 대해서 세종 때에도 바다에 표류하여 제주도에 온 계집아이가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아마도 이런 일이 삼국 때에 있었다면 괴이한 말을 보태어 신이 내려오고 귀신의 조화라며 꾸며냈을 것이라 단언한다. 그리고는 이러한 것에 대해 지금 사람들이 상고하지 않고 후손들이 실재라고 믿으니 이상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익의 영향을 받은 안정복(1712~1791) 역시 이러한 건국신화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는 “삼국의 시조는 반드시 그 사람됨이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났고, 해동의 풍속이 무지하여 신기한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므로 가탁하여 말을 만든 것이다”²⁶⁾며 이러한 이야기는 속담이나 고담과 같은 것이므로 역사에 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나 사마온공이 『통감』에서 일체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안정복은 가야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신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으며, <괴설변증(怪說辨證)>을 통해 소위 허무맹랑한 내용들을 합리적 시각에서 비판하였다. 그는 『삼국유사』에 실린 김수로왕의 이야기를 서거정 등이 『여지승람』이나 『통감』과 같은 책을 편찬하면서 허황한 것을 알면서도 사서에 기록하였고, 『동사찬요』에서도 버리지 않고 취한 것을 비판하며 이는 괴설이니 공격하지 않아도

25) 이익, 『성호사설』, 「경사문」, <수로허후>

26) 안용복, 『동사강목』, <괴설변증(怪說辨證)>. 이하 『동사강목』의 번역은 고전번역원 DB 참조.

저절로 무너질 것이니, 길게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단언하였다.

정약용(1762~1836) 역시 『아방강역고』에서 이익, 안정복과 비슷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 살펴보건대, 『동국사략』에 여섯 알에 대한 설이 있으며, 『동국총목』에서는 수로왕의 형제 여섯 명이 나뉘어 6가야의 시조가 되었다는 설이 나오지만, 이는 모두 후세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설을 만든 것으로서 충분히 증명할 수가 없다.²⁷⁾

즉, 난생으로 시작되는 가야의 건국은 사실이 아닌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충분히 증명할 수가 없으니 기록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신화로서 가야에 대한 기억이 허탄하다며 배격하였으나 가야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자 함은 아니었다. 오히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로 가야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역사, 특히 우리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란을 겪고 그 상처를 치유해가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주체적 각성과 자주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²⁸⁾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대륙의 패권을 잡으면서 중화의 중심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옮겨졌다는 조선중화사상²⁹⁾은 중국의 역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폭시켰다. 이에 더하여 청나라를 통해 도입되었던 천문·역산(曆算)·지리에 관한 한역서학서나 천문도·세계지도 등은 이들의 안목을 넓혀

27) 정약용, 정해영 역, 『아방강역고』, 현대실학사, 2001, 111쪽. 이하 『아방강역고』로 표기한다.

28) 윤재환, 『조선조 지식인들의 신라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문학논집』 제31집, 근역한문학회, 2010, 87~88쪽 참조.

29) 조선중화주의에 관해서는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참조.

주었으며³⁰⁾, 이로 인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문헌 고증을 중요시한 실학이 등장하면서 역시 전대의 사료와 전거를 수집 정리하여 자신만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풍부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야에 대한 실증적·객관적 이해는 고대 국가, 특히 삼한(三韓)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여 변화였다. 최치원 이래 우리 고대사에서 삼한은 마한-고구려, 진한-신라, 변한-백제의 계승관계가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삼한-삼국의 인식 속에서 가야의 설자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 초기 관찬 역사서인 『동국통감』, 『삼국사절요』에서 가야는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신라 중심의 서술에서 객체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라 할 수 있다. 한백겸(1552~1615)은 근기 남인계열 문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역사지리학적 연구의 선구자로서 후대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우리 고대사를 남북으로 양분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한(漢)의 사군(四郡)은 한강 이북에 국한시키고 삼한의 위치를 한강 이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삼한을 삼국에 비정하던 전통적인 삼한인식을 벗어나 마한-백제, 진한-신라, 변한-가야로 새롭게 파악하고, 고구려는 삼한과 무관한 존재로 파악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그가 변한을 가야의 전신(前身)으로 이해하고 그 강역을 경상도의 서남지역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이다.³¹⁾ 한백겸의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 그 위치가 불확실했던 가야의 역사적 실체가 이 시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익은 한백겸의 삼한설을 받아들여 한층 더 심도 깊은 ‘삼한정통론’을 전개하였다.³²⁾ 그는 고조선과 삼국의 중간 시기에 존재했던 역사적

30) 문창로, 「성호 이익의 삼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제74집, 한국고대사학회, 2014, 235쪽 참조.

31) 한백겸의 삼한과 가야에 대한 인식은 문창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62집, 한국고대사학회, 2011, 참조.

실체로서 삼한을 인식하고 시공간적으로 단군·기자의 정통을 삼국에 연결시킴으로써 고조선 이래 계승된 삼한의 정통성을 강조하려 했다. 특히 그는 삼한의 지리적 위치를 넘어서 역사적 전개과정까지 주목하였다. 또한 이익은 변한 전체를 가야로 비정한 한백겸의 견해에서 벗어나 변한과 가야를 구분해서 파악하였다. 즉, 가야의 범위를 지리산 북쪽의 5가야 및 김해 지역의 가락으로 상정하여, 지리산 이남 지역에 국한한 변한과는 구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익은 가락과 가야에 대하여 다양한 고증을 시도하였는데, <경사문>의 <가락가야(駕洛伽耶)>에서 “추측컨대 모한(慕韓)이란 이 마한(馬韓)이고 가라(加羅)란 이 가락(駕洛)이고 임나(任那)란 이 가야(伽耶)인 듯하다. 이 모(慕)·마(馬)와 가(駕)·가(伽)와 낙(洛)·라(羅)는 음이 서로 비슷해서 그릇 전해진 것이고, 임(任)·가(伽)와 나(那)·야(耶)는 글자가 서로 흡사하여 분간을 잘못했기 때문인 듯하다.”³³⁾며 역대 문헌들에 등장하는 가야의 명칭에 대해 상고하기도 했다.

이익의 역사인식은 제자인 안정복에게 이어지면서 더욱 견고해진다. 안정복은 스승 이익뿐만 아니라 성호 문인 가운데 대표적인 윤동규, 이병휴와 함께 우리 역사서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였다. 이는 통계(統系)의 정립과 관련된 정통론, 절의의 표창 및 역적에 대한 근엄한 필법은 물론 정확한 지리고증까지 요구되는 일이었다. 그는 1754년부터 1762년에 걸쳐 이익과 수차례 편지문답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오랜 문답과 토론 끝에 완성한 역사서가 바로 『동사강목』이었다.³⁴⁾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이익의 삼한정통론을 이었지만, 변한-가야에 대해서는 이익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그는 “수로는 진한의 남쪽

32) 이익의 삼한과 가야에 대한 인식은 문창로, 앞의 논문, 2014, 참조. 255~256쪽 참조.

33) 이익, 『성호사설』, 제 19권, 『경사문』, <가락가야>.

34) 김남일, 『『동사강목』의 편찬 배경과 강목체 기년』, 『한국사학사학보』 24, 한국사학사학회 2011, 참조.

경계를 차지하여, 가야산 남쪽과 지리산 동쪽이 모두 그의 소유였으니, 아마도 변한의 땅인 듯하다.”³⁵⁾며 변한과 가야의 강역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다섯 가야는 변한의 옛 땅이 나뉘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안정복은 역사서를 저술함에 있어서 통계(統系)를 바로잡아 정통(正統)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문무왕 9년 이후)-고려(태조 19년 이후)로 이어지는 한국사체계를 정통으로 취급하고, 삼국시대를 무통(無統)의 시대로 파악”³⁶⁾하였다. 이러한 통계 속에서 가야(가락과 가야)는 예맥, 옥저와 함께 소국(小國)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동사』에서 가락과 대가야를 신라의 부용소국(附庸小國)으로 편제시킨 허목의 인식과 일치한다. 비록 이들이 가야의 역사를 신라사에 부용된 소국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편제는 가야에 대해서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기(史記)』 이래 중국 정사에서는 주변 여러 소국들을 제후국으로 취급하여 외이열전(外夷列傳)으로 서술하는 것이 관례였다. 안정복은 이러한 사서(史書)의 격식을 지키면서 우리 역사에서 가야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며, 나아가 객체가 아닌 독립된 국가로서 가야를 인식한 것이다.

정약용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야의 존재를 안정복 보다 훨씬 중요하게 파악하였다. 정약용은 기존 사서 및 유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조선 8도에 대한 각각의 역사적 연혁을 고찰하면서, 북쪽은 조선→사군→고구려→발해로, 남쪽은 한국(韓國=辰國)→삼한(마한→백제, 진한→신라, 변진→가야)로 연결되는 양자 병립의 이원적인 고대사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그는 삼한과 관련하여 『아방강역고』의 총론 격인 <삼한총고>를 비롯하여 각론에 해당하는 <마한고>, <진한고>, <변진고>, 그리고 <변진별고(가라고)> 등에서 가야의 위치와 역사를 서술하였다.³⁷⁾

35) 안정복, 『동사강목』, 제 1권.

36) 문창로, 앞의 논문, 2011, 85쪽.

37) 위의 논문, 89쪽 참조.

신라 때에 가락국이 지금 김해부에 있으면서 가라(加羅) 또는 가야(伽耶)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변진의 총왕이었다. (중략) 함안이 아니 가야이고, 고성이 소가야이니, 변진이 진한의 남쪽에 있고 남쪽으로 왜와 접했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령이 대가야이고, 성주가 벽진가야이고, 함창이 고령가야이고, 함천에 가야산이 있으니 이것들은 모두 변진에 속하였으므로 이름을 가야라 한 것이다.³⁸⁾

변진은 분명히 가라이다. 그러나 가라의 흔적이 복사와 수서에 겨우 보이므로, 이제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가라의 사적을 채취하여 변질별고를 만들고 변진의 역사에 해당시키고자 한다. 진한과 변진은 처음에는 모두 6국이었다가 뒤에 각각 12국이 되었다. 그런데 가라가 단지 6국만 있는 것은 역사가들이 그 여섯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신라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마땅히 진본기(秦本紀)와 항우본기(項羽本紀)를 따로 만든 범례에 따라 가라본기 한 권을 지었어야 하는데, 김부식이 빠트리고 기록하지 않았다.³⁹⁾

정약용은 진한의 남쪽에 자리한 변진의 강역범위를 김해·거제·함안·고성 등 경남 해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상정하였다. 또, 역대 사서들 및 중국의 사서들을 두루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가야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삼한 가운데 신라가 아직 미개하고 문자가 없어서 중국에 조빙함에 백제에 부용하기도 하고 가라에 부용하기도 하였으니, 중국의 역사가 그 명백한 증거이다”⁴⁰⁾면서 가야를 신라의 부용국으로 인식했던 이전까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약용은 가아는 바다 어귀에 살아서 선박과 해운에 대해 익숙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조공을 통한 교역에 있어서 신라보다 우위에 있었을 것이라 추론했다. 심지어 그는 문자 생활에서도 신라가 도리어 가아에 뒤졌을 것이라며, 그 형세가 가아를 대표로 하고 신라

38) 『아방강역고』, 99쪽.

39) 『아방강역고』, 108쪽.

40) 『아방강역고』, 116쪽.

가 부용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약용은 신라를 본기(本紀)로 찬술할 요량이면 가야 역시 따로이 본기(本紀)가 편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따로이 본기를 가지기는커녕 신라의 객체로만 어설프게 이해되었던 것에 비하면 그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근기 남인계열 문인들의 역사서들을 살펴볼 때, 이전까지 옛 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신화로서 그 역사적 실체가 불분명하였던 가야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리 고대사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국으로 분명하게 인식되었다고 하겠다.

Ⅲ. 맺음말 : 가야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제언

2000여 년 전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실체로서 가야는 6세기 경 멸망하여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가야의 존재는 완전히 망각되지 않고 때때로 기억 속에서 소환되곤 하였다. 이때 가야에 대한 기억은 객관적 실체로서 가야와 동일하지 않다. 기억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사서를 통해 가야가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그 인식의 제 양상을 살펴 보았다.

가야의 옛 권역이었던 김해와 고령에서는 가야의 역사가 신화적 서사와 함께 전승되었다. 특히 <가락국기>는 시조 수로왕의 건국신화가 11세기까지 나뉘는 신성성을 보장받으며 전승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수로왕의 신성성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혈통적 우월성에 대한 존송을 위해 가문 내에서 유지되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었던 가문의식은 가문의 근원으로서 가야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마지막으로 근기 남인계열의 실학자들은 우리 고대사에 대한 관심 속에서 가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신화

로서 가야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대신 우리 고대사의 일원으로서 가야의 위상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런데 가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문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상과 같이 살펴본 다양한 가야에 대한 인식이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문학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가야에 대한 인식, 특히 지역민을 중심으로 전승된 신화적 서사가 구비전승되는 모습을 가야의 옛 권역을 중심으로 한 전설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가야를 어떻게 형상화하였는가는 특히 시문(詩文)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라진 옛 국가로서 가야는 영사시(詠史詩)의 대상이 될 터이다. 영사시의 특징 상 감개와 회고의 정서가 주를 이루겠으나, 허적의 <알수로왕릉-시여시조(謁首露王陵-是余始祖)> 등 가문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시문(詩文) 역시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엄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가야에 대한 인식이 과거 이러한 인식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의 연구는 현대 문학 분야에서 가능할 것이다. 가야의 역사를 소설로 재창조한 최인호의 『제4의 제국』이 가락국의 권역이었던 부산 지역의 일간지에서 연재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적 관점에서 고령과 김해 등에서 열리는 가야문화축제를 통해 현재의 관점에서 가야와 가야인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되어야만 지금의 관점에서 가야의 문학적 연구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연』
『동사강목』
『삼국사기』
『삼국유사』
『성호사설』
『속 동문선』
『신동국여지승람』
『아방강역고』
『조선왕조실록』

- 김남일, 「『동사강목』의 편찬 배경과 강목체 기년」, 『한국사학사학보』 24, 한국사학사학회 2011, 5~61쪽.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3, 푸른역사, 2002.
- ,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 남상악, 「성호의 역사관」, 『유교사상연구』 제18집, 한국유교학회, 2003, 67~85쪽.
- 문창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62집, 한국고대사학회, 2011, 61~109쪽.
- , 「성호 이익의 삼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제74집, 한국고대사학회, 2014, 217~263쪽.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2000.
- 엄경흠, 「한시에 표현된 駕洛國 都城으로서의 金海」, 『동양한문학연구』 39집, 동양한문학회, 2014, 167~194쪽.
- 윤재환, 「조선조 지식인들의 신라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문학논집』 제31집, 근역한문학회, 2010, 85~118쪽.

- 이강옥, 『수로신화의 서술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 의미』, 『가라문화』
5집, 경남대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1987, 133~170쪽.
- 이영식, 『〈가락국기〉의 사서적 검토』, 『강좌 한국고대사』 5권, 가락국사
적개발연구원, 2002, 145~208쪽.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1, 지식산업사, 2005.
- 한영우,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111쪽.

<Abstract>

Gaya (伽倻) and the Awareness of Gaya Viewed from Historical Books

Park, Yang-Ri

This study is a work on public opinion of the Gaya confederacy (伽倻, AD 42~562) for the purpose of literary research, thus is to examine how ancestors in Korea remembered Gaya through reviewing historical books. As the boundary of history and myth, Gaya was remembered as the nation ruled by the holy king. King Suro (首露王), in particular, was worshiped as the mythical hero that gave birth to the nation. He was believed to be the root of the Kim and Heo clans of Gimhae, who are the descendants of the Gaya people. They preserved the tomb of King Suro and made incessant efforts to raise its status. As a result, by the late Joseon Dynasty, national rituals were organized for the royal tomb of King Suro. However, intellectuals of the Joseon Dynasty remained negative concerning the Gaya mythology. Leading scholars of the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實學), such as Yi Ik(李穡), An Jeong-bok (安鼎福) and Jeong Yak-yong (丁若鏞), saw that the Gaya myth was groundless and unreliable. Rather, they made an attempt to disclose, objectively and empirically, the existence of Gaya as Korea's ancient kingdom. Especially Jeong Yak-yong treated the history of Gaya as much important as that of the Silla Dynasty. The existence of such various perceptions on Gaya indicates that Gaya was not merely an ancient

history kept inside a glass case but a living history cherished by many for a long time. Gaya was perceived differently by those who held different stances and purposes. And, concerning how Gaya is to be remembered today, homework still remains.

Key Words : Gaya(伽倻), Awareness of Gaya (伽倻), Garakgukgi(駕洛國記), King Suro (首露王), Yi Ik(李穡), Jeong Yak-yong, (丁若鏞), DongsaGangmok(東史綱目), Abanggangyeokko (我邦疆域考)

■ 논문접수 : 2016년 7월 15일

■ 심사완료 : 2016년 7월 28일

■ 게재확정 : 2016년 8월 16일

